

강진 절화수국 화훼 수출 새 강자 부상

4.9ha 생산 상반기 6만본 日 수출...2억5000만원 소득 수국 꽃길 연계 대형 수국공원 조성 랜드마크 육성 계획

강진군의 절화수국이 화훼 수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그린화훼영농법인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올 상반기 동안 총 24회에 걸쳐 6만본의 절화수국을 일본에 수출했다. 금액으로만 2억5000만원어치다. 현재까지 누적 수출량도 53만본, 총 27억원에 이른다.

그린화훼영농법인은 10년 전부터 일본 시장에 수국 수출을 시작했다. 현재 19명의 화원과 함께 4.9ha 면적에서 절화수국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수국은 전남지역 수국 생산량의 61%, 수출 생산량으로는 45%를 차지한다.

강진에서 재배되는 수국은 3월부터 11월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저온성 작물이라 다른 화훼 품종보다 난방비가 25%가량 절감되고 수확기가 조절이 가능해 노동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강진군은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공모사업으로 4억3000만원을 확보해 저온저장고 7동과 저온수송차량 13대를 설치하고 수출용 화훼 유통 장비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수국의 관광상품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강진을 고성사, 금곡사, 보은산 등산로를 중심으로 총 8km에 달하는 수국 꽃길을 조성했다.

올해는 20리 수국 꽃길과 연계한 1만 2000㎡ 규모의 대형 수국공원을 만들어 강진군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양석 그린화훼영농법인 대표는 "세계 화훼 시장에서 네덜란드 등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우리나라 수국은 꽃이 오래가고 화색이 좋아 해외에서도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공모사업으로 4억3000만원을 확보해 저온저장고 7동과 저온수송차량 13대를 설치하고 수출용 화훼 유통 장비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수국의 관광상품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강진을 고성사, 금곡사, 보은산 등산로를 중심으로 총 8km에 달하는 수국 꽃길을 조성했다.

올해는 20리 수국 꽃길과 연계한 1만 2000㎡ 규모의 대형 수국공원을 만들어 강진군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양석 그린화훼영농법인 대표는 "세계 화훼 시장에서 네덜란드 등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우리나라 수국은 꽃이 오래가고 화색이 좋아 해외에서도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공모사업으로 4억3000만원을 확보해 저온저장고 7동과 저온수송차량 13대를 설치하고 수출용 화훼 유통 장비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진군의 절화수국이 수출 분야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만개한 수국을 젊은 여성들이 환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전라병영성 건물복원 예산확보 분주

이승옥 강진군수, 문화재청 방문 내년 예산 반영 건의

이승옥 강진군수가 문화재청을 방문해 전라병영성 내부 건물복원 예산을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군수는 최근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만나 제107호로 지정된 전라병영성 병영성 객사와 연희당 등 내부 건물을 복원하고 외부 해자의 정비에 관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진>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1998년 성곽 복원사업을 시작해 2016년 성곽 및 문루 복원을 모두 완료했다. 성 내부의 전체 발굴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외부 해자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강진군은 성 내부에 가장 핵심 건물인 객사(침실각)와 연희당 및 연지 등의 복원을 위해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시

행해 단기 복원계획을 수립했다.

내년에는 실시계획 및 해자 정비를 시작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군수는 또 정 청장에게 강진 도요지와 함께 해남군, 부안군이 연합한 '한국 고려통도요지'로 잠정목록을 수정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고 문화재청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군 최고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이 될 전라병영성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1994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 후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강진 도요지'가 올해를 기점으로 반드시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청소년 동아리 박람회에 분식가게 체험팀으로 참가한 학생들이 행사장에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청소년 동아리 박람회' 성료

전남 7개 시·군 11개 공연팀·23개 체험팀 400여명 참가

장흥군이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재능 발굴을 위해 개최한 청소년 동아리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장흥군청소년수련관·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고, K-water전남서남권지사·귀족호도박물관

이 후원한 이번 박람회에는 전남 지역 7개 시·군의 11개 공연팀과 23개 체험팀 400여명이 참가했다.

체험팀에서는 네일샵, 캘리그래피, 달걀그림 그리기, 분식가게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선보였다.

장흥군은 제12회 정남진 물축제 기간에도 군과 청년회의소가 각각 주관하는 '강변음악축제'와 '정남진 장흥물축제 청소년 잔치'를 열고 청소년들이 넓은 무대에서 숨은 기량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갖도록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에는 여름캠프와 청소년이 직접 꾸미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해 청소년 스스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다양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군 추경 첫 6000억 돌파 복지분야 등 6060억원 확정

영암군의 추가경정예산이 군 사상 처음으로 6000억원대를 돌파했다.

영암군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6060억원을 지난 24일 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230억원 대비 830억원(15.87%)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14년 3955억원, 2016년 4413억원, 2018년 5290억원에서 차츰 증가해 6000억원을 돌파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대비 768억 원(16.26%)이 증가한 5492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억원(1.61%)이 증가한 81억원이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0억원(14.27%)이 증가한 487억원을 편성했다.

가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 1338억원(22.03%), 사회복지분야 1317억원(21.73%), 수송 및 교통, 국토지역개발 분야 878억원(14.50%), 환경분야 797억원(13.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은 보편적 복지사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141억원,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사업에 428억원을 반영하는 등 사회복지와 주민생활 편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영암경찰, 국가유공자 자택 명패 달기 '뜻깊은 행사'

영암경찰이 국가유공자 자택에 명패를 달아주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26일 국가유공자 자 영암 신복지역에 거주하는 6·25 참전경찰 유공자 황모씨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

이 날 행사에는 박영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도 함께했다.

양희선 영암경찰서장은 "명패를 달아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덕남동, 임야 급매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